**롬0724 Note**

**◆도우미 : 본절에 대한 존 스토트의 해설**

존 스토트(J. Stott)는 본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불신자는 '자기 의'(self-righteousness)로 특정지워지면 본절과 같이 자신을

'비참한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자기 확신'(self-confidence)으로 특정지워지며, 자기를 구원할

자에게 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숙된 성도만이 '자기 혐오'(self-disgust)와 '자기 절망'(self-despair)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한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곤고함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

이와 같이 스토트는 본절을 거듭나지 못한 자의 탄식이 아니라 거듭났으며 성숙된 성도의 탄식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구원을 위한 호소'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호소(Murray)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간의 갈등을 극복케 해달라는 호소이다.

불신자 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기속에 일어나는 두 법의 투쟁을 깨닫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탄식하지 않는다.

제가 (관리자) 보는 관점은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철저한 부패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거듭남 영과, 우리의 부패된 육신을 대비시키면서,

그들간의 서로의 싸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갈 곳이 정해집니다.

롬0725.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그렇다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써는 하나님의 법규를 섬기나, 육신으로써는 죄의 법규를 섬기느니라.

롬0801. 그러므로 육신을 좇아 걷지 않고 성령을 좇아 걷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어떤 유죄판결[카타크리마:카타크리노(불리한 판단을 하다,선고하다,정죄하다,저주하다)에서 유래,불리한 판결,정죄]도 없느니라,

갈0517. 이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갈망하고(에피뒤메오: 마음을 두다,갈망하다,탐하다,바라다,기꺼이 ~하다),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 갈망함이라. 그리고 이들은 서로간에 대적하느니라(안티케이마이:반대하다,대적하다), 그래서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요0306. 육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며,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靈)이니라.

Ω요0663. 소생되는 것은 영(靈)이니, 육신은 아무것에도 유익하지 않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그것들이 영(靈)이며, 그것들이 생명이니라.